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민간경력자 231명, 5·7급 국가공무원으로 선발

- 빅데이터, 보건 의료, 신재생에너지, 산업안전 등 전문 인력 모집 -

1. 빅데이터,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 231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.

- 인사혁신처(처장 김우호)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'2021년도 국가공무원 5·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'을 확정하고,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공고했다.

2. 올해 선발인원은 5급 70명, 7급 161명으로, 주요 선발 직무는 ▲빅데이터 분석 ▲보건 의료정책 ▲신재생에너지 ▲산업안전 ▲국제통상 ▲정보보호 등이다.

- 특히 지난해 신설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선발인원 5명(5급 1명, 7급 4명)이 포함됐다.

【 2021년도 주요 선발 직무 】

5급 (70명)	빅데이터 분석(국방부·국세청), 보건 의료정책(복지부), 신재생에너지(산업부·새만금청), 국제통상(산업부·고용부), 자율주행제어 등 특허심사(특허청), 지역외교(외교부) 등
7급 (161명)	빅데이터 분석(행안부·국세청·권익위), 산업안전(고용부), 의약품 안전관리(식약처), 동물질병·검역(농식품부·식약처), 공간정보(통계청), 정보보호(국세청·해수부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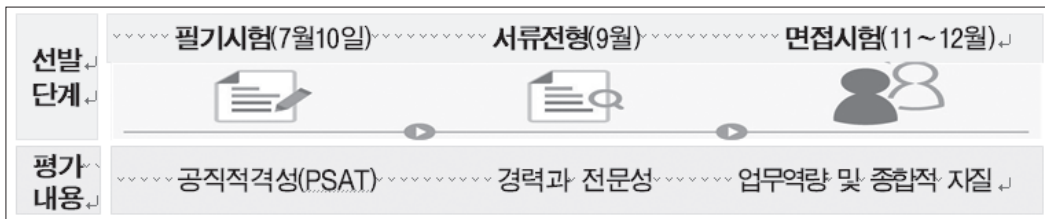
3. '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'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,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,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.

- 2020년 현재 총 1,685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이며,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,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.

구분	5급	7급
경력	• 관련분야 10년(관리자 3년) 이상 경력	•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
학위	• 관련전공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	•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
자격증	•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* 변호사, 의사, 기술사 등	•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* 각종 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 등

※ 기관 및 선발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

4. 원서는 6월 1일~7일까지 온라인(사이버국가고시센터)으로 접수하며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(PSAT, 7.10.)와 서류전형(9월), 면접시험(11~12월)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(5급 '21.12월, 7급 '22.1월)한다.



※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

- 특히 올해부터는 응사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(4월), 필기성적 사전공개(7월) 등을 도입해 제공한다.

5. 조규도 경력채용과장은 “올해의 경우 탄소중립,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업무분야와 산업안전, 보건의료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다수 포함돼 있다.”면서 “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들의 많이 지원을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붙임 **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채용시험 절차**

